



“낭만의 보성 녹차밭으로 오세요” 17일 밤 ‘2016 보성 차밭 이순신 빛축제’가 열리고 있는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 다향각 주변 녹차재배단지가 녹차 밭 수놓은 수만 개의 전구로 오색 물결을 이루고 있다. 축제는 내년 1월24일까지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5 해질 17:23
달출 12:18 달몰 --:--

아침 기온 영하권
오전에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는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조금 -3/7 보성 구름조금 -4/7
목포 구름조금 0/8 순천 구름조금 -1/8
여수 구름조금 0/8 영광 구름조금 -3/7
나주 구름조금 -4/8 진도 구름조금 -1/9
완도 구름조금 -1/8 진주 구름조금 -3/6
구례 구름조금 -4/7 군산 구름조금 -3/5
강진 구름조금 -4/8 남원 구름조금 -5/6
해남 구름조금 -4/8 흑산도 구름조금 3/8
장성 구름조금 -4/6

◇바다 날씨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0.5~1.5

◇주간 날씨
19(토) 2/9 20(일) 0/9 21(월) 4/10 22(화) 4/10 23(수) 7/9 24(목) 3/6 25(금) -1/6

징용 피해자 52명 중 1명밖에 못찾았는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광주·전남 피해 첫 조사 결과 보니

한국전쟁 거치며 자료 유실...조사위 활동 이달말 종료
최종 확인 40명중 1명 순천 출신...동생 피신후 연락 두절

일제강점기 동생과 함께 일본에 있었던 순천 출신인 이모(1882년생)씨는 1923년 9월1일 관동(關東)대지진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지진 다음날 조선 사람들에 대한 학살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씨는 동생과 함께 피신을 준비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동생을 먼저 차에 태워 보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차에 타지 못했고,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 보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의 손자(67)는 “작은 할아버지(이씨의 동생)가 생전에 늘 ‘나 때문에 형이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결혼 후 매년 음력 7월7일이면 할아버지 제사를 모셨는데, 작은할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의 소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17일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를 조사·분석한 결과 명부에 수록된 286명 중 28명이 관동대학살 피해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3·1운동 피살자 명부’에 수록된 2명과 순천 출신 이씨를 포함해 명부에 없는 다른 10명도 본격적 조사 등을 통해 관동대학살 피해자로 최종 확인했다.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와 ‘3·1운동 피살자 명부’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3년 피해신고를 모아 만들었으나 한때 유실됐다가 2013년 6월 주일 한국대사관을 이전 신축할 때 다시 발견됐다.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의 이름과 주소, 피살 당시 상황을 담은 ‘일본 진재시 피살자 명부’에 수록된 광주·전남지역 희생자는 모두 52명이다. 지역별로는 영암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무안 14명, 순

‘광주-대구 고속도로’ 통행료 2배 인상

도로공 “50% 할인 없애”
왕복 4차로 확장 개통(22일)을 눈앞에 둔 88올림픽 고속도로 통행 요금에 이달 안으로 2배가량 오를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 개통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계획 중이다.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담양~성산(152km) 구간 승용차의 경우 기존 3900원에서 8000원 안팎으로 통행료가 오르게 된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통행료 인상에 대해 88올림픽 고속도로가 2차선으로 운영됐던 과거와 달리 4차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구간 50% 할인 적용됐던 통행료가 복구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밝힌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분까지 보태게 될 경우 인상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인상 시기는 29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인상 폭은 차종과 관계없이 기존 요금에 50% 정도로 예상된다고 도로공사 측은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4차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이전까지 50% 할인 적용됐던 통행료가 정상 복구되는 개념으로, 오는 28일쯤 정확한 인상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시·도 교육감협 “누리 예산 해결하자” 정부·국회에 회의 제안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광주시교육감)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대표와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제안했다. 장 회장은 17일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21일 여야 대표와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

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의회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 또는 반토막 나당장 내년 초 보육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대구(6개월)·울

‘대통령 명예훼손’ 日 산케이 서울지국장 1심 무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기사도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박 대통령과 함께 있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